

# '여당' 민주당 강세 속 비(非)민주 빅맨 변수

[6·13광주시장]

10명 안팎 34월께 윤곽  
민주, '당원 명부 논란'  
기초 전략공천도 도마  
민평·미래등 거물급  
인사등판 여부 관심사

6·13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장 선거 구도도 서서히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키맨' 중 한 명인 이용섭 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직을 사퇴하고 윤정현 광주시장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전이 후끈 달아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당에서 분화된 민주평화당과 가칭 '바른미래당'은 요충지 광주를 공략하기 위해 경선이나 전략공천을 통해 '빅맨(Big Man) 카드'를 꺼낼 지 관심이 쏠린다.

선거 구도가 복잡다단해지면서 변수도 그만큼 다양해지는 형국이다.

12일 지역 정계에 따르면 광주시장 선거전에는 공직출마 선언이나 출마선언회, 지지모임 포럼 출범식이나 토크 콘서트를 통해 현재까지 모두 10명 안팎의 입지자들이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현직 윤 시장을 포함, 이 전 부위원장과 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 자문위원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양형자 민주당 최고위원, 이병훈 민주당 동남부 지역위원장, 최영호 남구정장, 나경채 정의당 전 대표, 윤민호 민중당 광주시장 위원장 등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7명으로 가장 많다. 예산적인 당내 경선에 나설 주자들이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나 전 대표와 윤 위원장을 본선 대표선수로 일찌감치 확정했다. 분당 갈등 끝에 두 쪽으로 쪼개진 국민의당 진영에서는 창당과 조직정비 등으로 어수선했다. 누가 민평당, 누가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설 지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당내 경선과 탈당 후 무소속

광주시청 전경



출마 등의 진통을 가정하면 최종 후보자는 4월 이후에나 최종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민평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 등으로 라인업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각종 여론조사 정당 선호도에서 50% 내외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이 절대 유리한 상황이지만 표심을 좌우할 민심의 향배는 경선 등을 통해 단일후보가 정해지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전이 달아오르면서 대결 구도를 뒤흔들 변수도 늘고 있다.

우선, 7인이 맞붙는 민주당에서는 경선이 본궤도 즉 전원 링 위 에 오를 경우 치열한 후보 검증이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난타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전3투에 나선 이용섭 부위원장은 의원 시절 비서였던 일자리 위 정책비서관이 당원 명부 유출 사건과 맞물려 논란이 된 10만 당원 실명문자 발송자료 검·경 수사 결과 드러나고, 전직 시장 조직국장의 명단 유출도 사실로 확인되면서 당원 명부사건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또 윤정현 광주시장은 임기 내내 발목을 잡았던 친인척 비리와 인사 논란이 '현직 프리미엄'을 깎아먹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민형배 청장도 비서실장 구속과 같은 측근 비리가 정치적 짐이 되고 있다. 나머지는 지지율 견인과 인지도가 지상과제다. 불명정 경선 시비가 불을 경우에는 '경선 보이콧'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뉴스스

# 출마 제한·분당 등 변수 등장에 '혼돈'

[6·13전남지사]

與개호 출마여부 관심  
김영록·장만채 등 대안  
주승용·박지원도 고민  
김홍걸 '고리' 민주민평  
선거 연대설도 모락모락

6·1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도지사 선거전은 새로운 변수가 속속 등장하면서 혼돈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집권당 유력 후보의 불출마 가능성이, 국회의원 선거구(전남 국회의원 의석수 국민의당 8, 민주당 1, 무소속 1)를 다수 점했던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과인 바른미래당과 통합반대파인 민주평화당으로 쪼개지면서 정치지형이 재편됐다.

11일 전남지역 정계에 따르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으로 이개호 의원과 노관규 전 순천시장, 국민의당은 박지원 전 대표와 주승용 의원, 무소속(아직 정당을 유입하지 않은) 정만채 전남도교육감과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 변수가 잇따르면서 그동안 거론됐던 후보들이 막판까지 선거를 종주할지 미지수다.

당장 광주·전남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개호 의원의 도지사 출마가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지도부가 원내 1당 유지를 위해 현역의원 출마 자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는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 의원을 '꼭' 잡아 '불출마'를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당의 요구가" 명분이 있느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당이 지역민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2일 전남도당위원장 자리를 내던졌다. 불출마를 요구한 당 지도부에 자신의 출마 의지를 보이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번

전남도청 전경



논란 직후 "본인이 출마 의지를 꺾지 않으면 막을 방법은 없다"고 밝혀, 예상대로 이 의원과 노관규 전 순천시장 등과의 경선이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제1당', '지방선거 기호 1번', '후반기 국회의원 지리 확보'라는 명분으로 선당후사(先黨後私)를 중용(?)할 경우 이 의원이 나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의원의 당의 요구를 수용하면 그 대안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오빠이락(烏飛鴨落)' 격으로 최근 이 사무총장을 만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부상한 김 장관에 대해 지역 여론의 향배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동안 꾸준히 도지사 후보로 거론된 주승용의원과 박지원의원과 겨뤄 이길 수 있느냐는 하는 것이 관건이다.

민주당의 진단결과 후보가 약하다고 판단된다면 재선 도유감에 높은 인지도를 가진 정만채 전남도교육감도 대안 중 하나로 부상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분당 사태를 맞은 야당 후보들은 약간 주춤하는 상태다. 바른미래당 주승용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모두 고민이 깊어졌다.

최근 분당 과정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반대파에 서서 힘겨투기를 하느라 중립정체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이 이해는 가지만, 수습 국면에 접어들어서도 예전 같은 동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지역정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박 의원은 중앙당 정치상황과 부인의 병간호에 신경을 쓰다보니 보폭이 좁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전남지역 곳곳을 돌며 광폭행보를 보였던 것과 비교해서 최근 뜸한 행보가 '이상기류'로 보는 시각이 있다.

주 의원 역시 두드러진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일단 주 의원이 민주평화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역의 호응을 받지 못한 바른미래당을 선택한 배경이 관심사다. 주 의원 사람들이 분류된 일부 지방의원이 민주평화당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그동안 "높은 정당 지지율을 보이는 민주당과의 3표전은 '벌레'가 될 것이다"고 예측했지만, 지금은 민주당 유력후보인 이개호 의원의 낙마 가능성이 미칠 파장을 계산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와 맞물려 주 의원이 불출마할 경우 순천대 총장을 역임하는 등 전남 동부권에서 강세를 보이는 정만채 전남도교육감의 무소속 출마 강행도 점쳐진다.

선거구도가 요동치면서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사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최근 박준영의원이 낙마한 무안·신안·영암 재선거를 고리로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선거 연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무안·신안·영암 재선거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이 컸던 김홍걸 DL(김대중대통령) 3남을 민주당이 공천하고 전남지사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나가는 연대 사나리오가 술술 나오고 있다.

뉴스스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